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10.(수) 13:30
(지면) 2025. 9. 11.(목) 조간

가을철 행사 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

- ‘가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’ 개최(9.10.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9월 10일(수) ‘가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’를 개최*했다.

* 참석 : 행안·교육·문체·국토부, 경찰·소방청, 17개 시·도, 재난관리책임기관 등

○ 이번 회의는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축제·행사와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다중운집 유형별 중점관리 대상*을 공유하고, 이를 토대로 수립한 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.

* 축제, 공연, 체육행사, 전통시장, 지하철·공항, 대규모점포 등

○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(금)부터 11월 16일(일)까지를 ‘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’으로 지정하고, 주요 축제*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.

* 규모(순간최대 1천 명 이상), 장소(산·수면), 폭발성 물질 사용(불꽃축제 등)

- 순간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 예상될 경우,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.

- 특히,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불꽃축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.

- 교육부는 대학축제를 준비 중인 모든 대학에 안전관리 자체점검을 요청하고, 순간최대 인원이 1만 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를 중심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외 다중운집인과 밀집이 예상되는 공연과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,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여행객과 가을철 단풍객으로 붐비는 공항·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에 나선다.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여름 주요 행사장 등에서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”라면서,
 - “가을철에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파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총괄)	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	양기현	(044-205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최회동	(044-205-5262)
		담당자	사무관	허재훈	(044-205-5269)
담당 부서 (지역축제)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박범수	(044-205-42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근	(044-205-4248)

